

• 타운뉴스 칼럼

선물

안창해
타운뉴스 발행인



감사의 계절이다.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해야 할 분들이 있다. 그 대상은 가족, 친척, 친지들을 비롯해 직장 동료, 이웃에 이르기까지 한 두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정성이 담긴 카드나 선물을 보내기도 한다. 선물은 남에게 감사나 정을 나타내는 뜻으로 주는 물건이다. 필자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은 어릴 적 친구가 손수 그려 준 그림이다.

세월이 흘러 그림을 선사했던 친구는 한국 화단의 중견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동양화가 기평(奇平) 손영락 화백이다. 그가 제 23회 개인전을 연다고 알려졌다.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고 한국 사는 친구들에게도 찾아가 볼 것을 권유하였다. 손 화백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초기에 아호를 현강(玄江)이라 했다. 검은 강이라는 그의 호에서 우리는 그의 우울을 읽어낼 수 있다. 현강이라는 한국어 소리가 주는 느낌은 밝은 편인데 그 한자의 뜻을 알고 들으면 깊숙이 어둠이 배어있음을 알게 된다. 그런 연유에서인지 확실치 않으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기평으로 바꿔 불렀다. 기평(奇平), 기이한 평형이라는 호가 말해주듯이 그는 다리를 전다. 그러나 평형을 이루며 잘 걷는다. 그리고 잘 걸어왔다.

기평은 수유리 동네 친구이다. 그는 본래 다리를 절지 않았다. 태권도 유단자였다. 그는 흥대 미대 재학 중에 목졸 병에 걸려 다리를 절게 되었다. 필자가 의정부에서 교편생활을 할 때, 기평도 의정부에 삶의 터전을 만들었다. 가까이 있으니 자주 보편만 일 년에 두어 번 만나며 지냈다. 그것도 크리스마스 한 달여 전에 만나 그가 직접 그린 동양화 한 폭이 그려진 연하장을 받아다가 친지들에게 팔았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지만 친구의 살림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팔았다. 그 후 서울로 전근한 뒤에도 해마다 기평의 연하장 판매는 계속했다.

필자가 미국으로 이주하던 해 정월, 그를 찾았다가 하루 종일 집안에 있었다면서 갑갑해 하는 기평을 자동차에 태우고 근처를 드라이브했다. 그때 기평은 자주 차를 세웠다. 불편한 몸이었음에도 내려서 풍경을 스케치했다. 내 눈에는 별로인데 기평은 감탄사를 연 발했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추운데 떨면서 그를 지켜보는 일이 힘들어 짜증이 나기도 했지만 그의 열정을 높이 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기평의 작품을

미국에서 전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

미국생활은 고단했다. 아침 일찍 창고에서 가드너들을 만나 일을 내보내고, 비디오 가게를 오픈했다. 종업원들이 오면 다시 학원으로 달려갔다. 학원은 두 곳에서 운영했다. 3개의 업종을 4곳에서 운영하며 정신없이 살았다. 좀 더 큰 비즈니스를 하려는 생각에 6년이 지나 사업체들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일을 모색하던 중에 라디오 코리아에 입사했다.

당시 라디오코리아 도산홀에서는 미술 전시회가 일년에 몇 차례씩 열리고 있었다. 주로 한국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는 분이 한국이나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인 작가들을 미국에 소개하는 전시회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갤러리 원장에게 기평의 이야기를 하고 그의 작품을 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미국에서 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2001년 2월 미국에서 기평의 전시회를 할 수 있었다. 내가 마음속에 품었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났다. 이번 12월 14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개인전이 23회라고 하니 기평은 꾸준히 작품 활동을 계속해온 것으로 보인다.

기평은 집으로 돌아와 내려주고 떠나려는 내게 그림 한 점을 주었다. 나를 생각하며 그렸다는 그림은 창공을 나는 독수리였다.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 위 태양이 이글거리고 구름 가득한 하늘을 나는 독수리. 암담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힘들어 하던 내게 그림을 주면서 기평은 말했다. "현실적으로 바다 위를 날아가는 독수리가 있을 리 없겠지만 독수리처럼 용맹스러운 네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냐?" 며 "사해(四海)를 돌아 휘몰아치라!" 고 했다.

필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기평의 그림 한 점이 내게 얼마나 큰 용기를 주고 힘이 되었던가. 기평은 자신이 줄 수 있었던 것 중에 가장 값진 것이었다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정성을 다해 그렸을 것이다.

창공을 나는 독수리 한 마리, 그 독수리가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면 지나친 과장일까? 25년이 지났어도 그림 속의 독수리는 날카로운 발톱과 눈을 부릅뜨고 하늘을 날고 있다.

chahn@townnewsusa.com

타운뉴스

제 1242호 목차

타운뉴스 칼럼 15
커뮤니티 소식 16,17,21
나는야 1.5세 아줌마 18
전문인 칼럼 22,23,50
미국 법률 25
여행 27
지금 서울에서는 29
세상에 이런 일이 31
함께 생각 35
IT/ 과학 37
업소탐방 38
영화/신간 39
부동산, 경제 41,43
갈갈 44
한인업소 안내지도 46,48,62,64,66,67
그림여행 47
여성 49,63
연예 55,57
Domestic/ 주간운세 56
중고차, 안내광고 58,59
요리 65

가주장익시

매장: 화장·묘지주선·이장·장례보험등
• 넓은 주차장 • 교통 편리 (LA, OC-20분)
• 저렴한 비용으로 봉사하여 드립니다.
24시간 대표: 정영목 목사
9830 Lakewood Blvd., Downey, CA 90240
TEL (562)622-9393

타운뉴스® 배포지역

- 로스엔젤레스, 세리토스, 아테시아
가디나, 토렌스
하시엔다, 로렌하이츠, 다이아몬드 바 등 LA 동부
오렌지카운티 전지역

www.townnewsusa.com

회사, 개인 모두에게 중요한 크레딧!!

개인 크레딧 & 비즈니스 크레딧 상향조정, 용자 저희가 도와 드립니다



- 개인 크레딧: 크레딧교정, 크레딧카드 및 탕감 및 이자율 조정 상담
크레딧 빌드업: 주택 렌트비 크레딧 리포트에 반영 및 다양한 솔루션 제공으로 신용 점수 급상승 가능
개인용자 상담, 최대의 크레딧라인 조성, 신용불량자 신용거래 즉시가능
비즈니스 크레딧: 비즈니스 크레딧 생성 및 빌드업에 관한 토탈 컨설팅
비즈니스 용자: 비즈니스 및 개인 신용 상태에 따른 맞춤형 용자 프로그램

유컨설팅은 공인 세무, 법무 법인이며, 6개의 지사 중 OC와 LA 오피스가 한인 담당입니다

예약상담 714-989-1231
14730 Beach Blvd. #233, Buena Park, CA 90638

예약필수 213-973-1183
3600 Wilshire Blvd. LA, CA 90010

